



창업기업 동향(승인번호 제142009호)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지 면) 3.3.(금) 석간 (인터넷) 3.3.(금) 06:00	-
-------	---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4-7460)
	정책분석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남기동 (044-204-7462) 서윤주 (044-204-7466)

2022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 발표

- 2022년 연간 창업기업 수는 131만 7,479개로 집계
 - '22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부동산업(111,623개↓) 제외시, 11,129개 증가
 - 도·소매업(7.3%↑), 농·임·어업 및 광업(12.9%↑), 교육서비스업(4.3%↑) 등에서 창업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2년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했다.

2022년 전체창업은 3고(高)(고(高)물가, 고(高)금리, 고(高)환율) 등으로 인한 세계적(글로벌) 경기침체가 창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년대비 7.1% (100,494개↓)가 감소한 131만 7,479개로 집계되었다.

* 연간 창업기업(개) : ('18) 1,344,366 → ('19) 1,285,259 → ('20) 1,484,667 → ('21) 1,417,973 → ('22) 1,317,479

특히, '20년도 소득세법 개정(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 '20.1월), 주거용 건물임대업 규제강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대비 111,623개(35.2%) 대폭 감소한 것이 전체창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22년 창업은 전년대비 11,129개(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부동산업 제외 창업(개) : ('18) 977,405 → ('19) 1,005,462 → ('20) 1,046,814 → ('21) 1,100,589 → ('22) 1,111,718

다만,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 전체창업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부동산업 창업 및 전체창업 증 비중(개, %) :

(‘18) 366,961(27.3) → (‘19) 279,797(21.8) → (‘20) 437,853(29.5) → (‘21) 317,384(22.4) → (‘22) 205,761(15.6)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전자상거래 증가, 거리두기 해제, 귀농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7.3%↑), 농·임·어업 및 광업(12.9%↑), 교육서비스업(4.3%↑), 예술·스포츠·여가업(6.6%↑) 등은 전년대비 창업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업종별 창업 수 및 증감률 >

(단위 : 개, %)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증 가 업 종	도·소매업	102,095 (1.2)	102,430 (0.01)	425,446 (9.1)	116,050 (0.7)	114,364 (8.2)	118,740 (16.3)	107,272 (4.7)	456,426 (7.3)
	농·임·어 업 및 광업	3,286 (8.8)	3,548 (13.3)	13,864 (6.7)	4,108 (12.9)	3,746 (10.4)	3,708 (12.8)	4,095 (15.4)	15,657 (12.9)
	교육 서비스업	9,285 (7.5)	10,598 (15.9)	40,793 (4.4)	12,175 (8.5)	9,647 (△0.5)	10,108 (8.9)	10,606 (0.1)	42,536 (4.3)
	예술· 스포츠·여가	6,051 (△16.8)	7,298 (10.0)	26,576 (△4.8)	6,360 (6.7)	7,041 (△3.1)	7,311 (20.8)	7,606 (4.2)	28,318 (6.6)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금리인상,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차질, 소비자 물가상승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13.3%↓), 금융보험업(21.2%↓), 건설업(5.9%↓) 등에서 창업이 감소하였다.

< 주요 감소업종별 창업 수 및 증감률 >

(단위 : 개, %)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제조업	11,690	11,325	47,989	11,799	10,256	10,153	9,387	41,595
	(△10.0)	(△1.8)	(△3.9)	(△7.4)	(△16.2)	(△13.1)	(△17.1)	(△13.3)
금융· 보험업	2,597	2,546	10,833	2,476	2,467	2,003	1,595	8,541
	(16.2)	(19.1)	(31.4)	(△4.0)	(△20.7)	(△22.9)	(△37.4)	(△21.2)
건설업	16,759	16,267	71,489	18,790	17,676	16,290	14,515	67,271
	(3.7)	(0.8)	(7.7)	(△5.5)	(△4.9)	(△2.8)	(△10.8)	(△5.9)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22년 기술기반 창업*은 22.9만개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실적(24만개)을 기록한 기저효과와 대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 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N75), 교육 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R90))

다만, 전체 창업 감소율(7.1%)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술기반 창업 비중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0.5%p 상승한 17.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절대적인 창업기업 수도 작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기반 창업 수 >

(단위 : 개,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
전 체	1,190,177 (100.0)	1,256,267 (100.0)	1,344,366 (100.0)	1,285,259 (100.0)	1,484,667 (100.0)	1,417,973 (100.0)	1,317,479 (100.0)	△100,494 (△7.1)
기술기반 (비중)	190,674 (16.0)	198,911 (15.8)	212,237 (15.8)	220,607 (17.2)	228,949 (15.4)	239,620 (16.9)	229,416 (17.4)	△10,204 (△4.3)

▶ 본 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참고1

'22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 주요 업종별 증감 분석

▶ 본 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1. 주요 업종별 증감 분석

(1) 증가 업종

- (농·임·어업 및 광업) 귀농인구 증가, 산업 첨단화(스마트팜¹⁾ 등), 수산 직불제법 개정²⁾, 어선 청년임대사업³⁾ 등에 힘입어 농·어업의 창업 증가
- (연간동향) 2022년 농·임·어업 신규창업은 전년의 성장세가 이어져 두 자릿수의 증가세 기록

(단위 : 개, %)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농·임·어업	3,286	3,548	13,864	4,108	3,746	3,708	4,095	15,657
	(8.8)	(13.3)	(6.7)	(12.9)	(10.4)	(12.8)	(15.4)	(12.9)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세부업종별) 농업 중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하였으며, 어업은 연근해어업 신규창업 활발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 등의 영향으로 '19년까지 감소하였던 귀농인 수가 '20년부터 증가하면서 농업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⁴⁾

* 귀농인구 수(명, %):

(15) 12,114(11.1%↑) → (16) 13,019(7.5%↑) → (17) 12,763(2.0%↓) → (18) 12,055(5.5%↓) → (19) 11,504(4.6%↓) → (20) 12,570(9.3%↑) → (21) 14,461(15.0%↑)

- 귀농인의 경우 딸기나 토마토 등과 같이 시설재배에 적합한 채소 품목을 선택하는 귀농인이 많음

1)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으로,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습도·햇빛량·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장치를 운영하여 농산물을 재배한다.
2) 소규모 어가·어선원에도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22.09.27.)
3)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어선청년임대사업은 만 49세 이하 성인에 대하여 어선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임(최대 2년분 임차료의 50% 지원)
4)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 호황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많고, 경제 불황기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경향이 높았음.(KREI 현황분석, 2021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 스마트팜 등 첨단시설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젊은층에서 채소류 중심의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의향이 높음

* 스마트팜 보급면적 (ha): ('20) 5,985 → ('21) 6,485 → ('22) 7,000

* 전체 경지면적 (천 ha): ('20) 1,565 → ('21) 1,547 → ('22) 1,532^P(0.9%↓)

* 전체 재배면적 (천 ha): ('20) 1,624 → ('21) 1,614 → ('22) 1,601^P(0.8%↓)

- 과수 재배면적의 경우 품종 갱신 등으로 전년보다 3% 증가한 것으로 추정(농촌경제연구원)

* 최근 사과와 감의 경우 미니사과나 신품종인 시나노골드(황금사과) 등의 선호 증가로 신규 진입한 농가가 늘어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포도의 샤인머스켓은 여전히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 품목 전환이나 신규 진입한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재배면적이 10%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23년 상반기 시행예정), 어선 청년임대사업('22년 시범사업) 등이 연근해 어업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다른 업종에 비해 50대 이상의 신규 진입이 크게 증가

* '22년 연령별 농·임·어업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30세미만) 6.9 (30대) 0.8 (40대) 6.9 (50대) 10.4 (60세이상) 25.6

○ (조직형태별) 법인 창업은 감소한 반면 개인 창업은 증가

* '22년 농·임·어업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법인) △19.2 (개인) 20.4

□ (도·소매업)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낮은 초기 투자 비용, 해외판매의 유리함 등으로 온라인 소매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금리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

○ (연간동향) 2022년 도·소매업 창업은 소매업을 중심으로 '19년 이후 양호한 증가세 지속

(단위 : 개, %)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도·소매업	102,095	102,430	425,446	116,050	114,364	118,740	107,272	456,426
	(1.2)	(0.01)	(9.1)	(0.7)	(8.2)	(16.3)	(4.7)	(7.3)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세부업종별) 도매업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매업 중 무점포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무점포소매업 중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 오프라인 매장이 중심인 도매업, 일부 소매업 등은 초기투자 및 경영 유지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창업은 감소 또는 둔화되는 모습

○ (연령별) 3·40대와 60세 이상에서 도·소매업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에서 신규창업 활발

* 2022년 연령별 도·소매업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30세미만) △1.6 (30대) 10.0 (40대) 11.8 (50대) 5.8 (60세이상) 8.1

○ (조직형태별) 개인창업은 양호한 증가를 보이나 법인은 시장포화⁵⁾ 및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감소

* '22년 도·소매업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법인) △9.9 (개인) 8.7

□ (교육 서비스업) 코로나19 규제 완화와 건강·취미에 대한 수요확대 등으로 스포츠, 미술, 음악 학원이 증가하면서 신규창업 증가

○ (연간동향) 코로나 19 규제 완화가 확대되면서 '22년 교육서비스업 창업은 전년 수준의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단위 : 개, %)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교육	9,285	10,598	40,793	12,175	9,647	10,108	10,606	42,536
서비스업	(7.5)	(15.9)	(4.4)	(8.5)	(△0.5)	(8.9)	(0.1)	(4.3)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세부업종별) 기타 교육기관이 증가하였고, 그중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그 외 기타교육기관이 증가

-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예술학원은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중심으로 증가

5) 법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국내 시장은 포화되어 이미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소매업 신고를 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증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덤벨 이코노미⁶⁾), 미술·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교육기관 신규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 * 최근 운동프로그램(요가, 필라테스 등)과 건강관리 식단(프로틴 음료 및 바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 관련 창업이 증가(최근 프로틴 관련 상품 매출상승 등)
 - * 팬데믹 이후 시간자원에 대한 소비패턴 변화와 가정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미술, 음악 등에 대한 소비 증가

- (연령별) 30대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신규창업 활발
 - * '22년 연령별 교육 서비스업 창업 증감율(% , 전년대비) : (30세미만) 5.4 (30대) 5.0 (40대) 3.3 (50대) 4.5 (60세이상) 3.9

- (조직형태별) 법인과 개인 창업 모두 양호한 증가율 기록
 - * '22년 교육 서비스업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법인) 8.2 (개인) 4.1

□ (예술·스포츠·여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실내외 여가 활동 증가, 정부지원 확대 등으로 예술·공연, 노래방, 독서실 등의 창업이 활발

- (연간동향) 거리두기 규제가 해제되면서 '22년 예술·스포츠·여가 창업은 전년대비 증가 전환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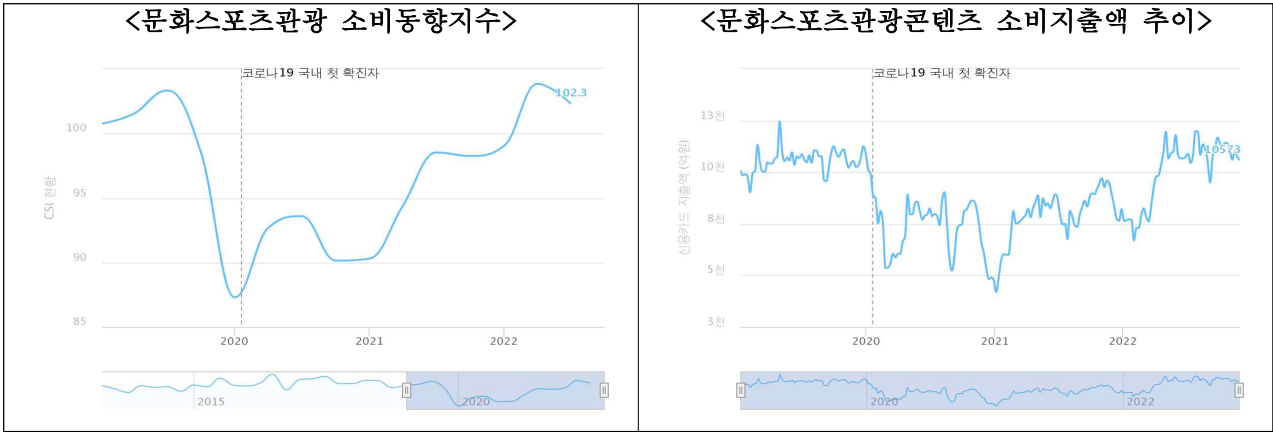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예술	6,051	7,298	26,576	6,360	7,041	7,311	7,606	28,318
스포츠·여가	(△16.8)	(10.0)	(△4.8)	(6.7)	(△3.1)	(20.8)	(4.2)	(6.6)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세부업종별) 창작·예술·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오락관련서비스업 모두 증가
 - 창작·예술·여가관련서비스업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독서실 운영업 등이 크게 증가
 - 스포츠·오락관련서비스업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이 크게 증가

6) 덤벨 이코노미(Dumbbell economy)이란 아령(Dumbbell)과 경제(Economy)를 합친 용어로, 건강과 체력 관리에 관한 소비가 늘고 관련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경제현상을 말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확대
- 2022년 공연시장 및 스포츠·레저 소비 지출 크게 증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다른 업종에 비해 50대 이상의 신규 진입이 크게 증가
 - * '22년 연령별 예술·스포츠·여가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30세미만) 2.2 (30대) 7.2 (40대) 5.5 (50대) 9.0 (60세이상) 7.6
- **(조직형태별)** 법인과 개인 창업 모두 양호하게 증가
 - * '22년 예술·스포츠·여가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법인) 9.1 (개인) 6.4

- 7) 자료: 국회문체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의결(2022.5)
-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①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600억원, ② 영화관 방역 인력 지원 308억 9,400만원, ③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240억원, ④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임대료 지원 29억 6,000만원 등 총 1,178억 5,400만원을 증액
 - '문화패스 지원' 사업에 임산부,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에게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700억원을 증액하였고,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은 공연예술계 피해 지원을 위하여 ①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 생태계 구축, ②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③ 공연단체 대관료 지원 사업에 각각 360억원, 118억원, 120억원 증액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에 1,260억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102억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여행사 임대료 지원' 사업에 660억원, '국내여행상품 할인지원'에 84억원, '유원시설 이용 활성화'에 200억원, '관광숙박할인권 지원'에 416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
 - 스포츠산업계의 경우 '스포츠산업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① 체육시설 임대료 지원, ②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③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에 각각 1,680억원, 550억원, 25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사업에 국내 스포츠기업에 대한 융자 예산 500억원을 증액

(2) 감소 업종

-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규제 강화('20년 7.10대책) 영향 지속,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감소, 금리인상에 따른 수익률 저하(비주거용 건물임대업)로 창업이 감소

* 기준금리(%) : ('21.5) 0.5 → ('21.8) 0.75 → ('21.11) 1.0 → ('22.1) 1.25 → ('22.4) 1.50 → ('22.5) 1.75 → ('22.7) 2.25 → ('22.8) 2.50 → ('22.10) 3.00 → ('22.11) 3.25 → ('23.1) 3.50

- (연간동향)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거래량 감소,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폭 확대

(단위 : 개, %)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부동산업	77,396	79,315	317,384	66,473	63,853	42,660	32,775	205,761
	(1.2)	(15.7)	(△27.5)	(△15.6)	(△22.1)	(△44.9)	(△58.7)	(△35.2)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세부업종별) 금리인상, 자산가치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기저효과 등으로 주거용 건물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중심으로 감소

- 주거용 건물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규제 강화('20년 7.10 대책 이후) 후 전년의 기저효과로 감소세 지속
- 금리인상, 자산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모두 창업 감소(미분양↑, 거래량↓)

* 주택 가격과 임대가의 하락은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과 임대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줄어들면서 거래량의 감소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의 신규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

< '22.12월 지역별 거래량 및 증감률(단위: 건) >

구분	'22.12월	'22.11월	'21.12월	증감률('22년 12월)			누계(1~12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5년 12월 평균비	거래량	전년 동기비	5년 12월누계 평균비
전국	28,603	30,220	53,774	△5.4%	△46.8%	△67.5%	508,790	△49.9%	△48.1%
수도권	11,127	11,428	21,573	△2.6%	△48.4%	△73.6%	201,714	△57.9%	△59.6%
서울	2,844	2,552	6,394	11.4%	△55.5%	△78.3%	56,007	△55.8%	△64.8%
지방	17,476	18,792	32,201	△7.0%	△45.7%	△61.9%	307,076	△42.7%	△36.2%

※ 자료: '22년 12월 주택통계 발표(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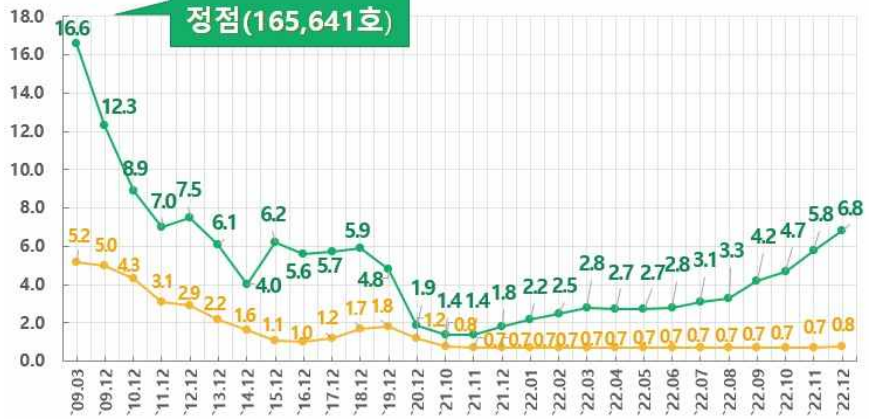
< '22년 부동산업 주요 지표8) >

□ '22년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 아파트 가격 및 주택 거래량 감소

전국 미분양 현황



미분양 주택수



<미분양 주택거래 동향>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크게 감소

* '22년 연령별 부동산업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30세미만) △37.0 (30대) △37.1 (40대) △37.9 (50대) △35.1 (60세이상) △30.2

○ (조직형태별) 법인 및 개인 창업 모두 크게 감소

* '22년 부동산업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법인) △21.0 (개인) △36.1

□ (제조업) 원자재·환율·금리 상승, 무역적자 지속 등 국내·외적인 경영 환경 불안요인 증가, 디지털 산업의 성장 등으로 제조업 감소세 확대

○ (연간동향) 물가·환율 상승, 경기불황, 제조업 생산 및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창업 감소폭은 확대

* 제조업 생산 증감률(전년대비, %) : ('20) △0.2 → ('21) 7.6 → ('22) 1.3

* 무역수지(백만달러) : ('20) 44,865 → ('21) 29,307 → ('22) △47,230

(단위 : 개, %)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제조업	11,690	11,325	47,989	11,799	10,256	10,153	9,387	41,595
	(△10.0)	(△1.8)	(△3.9)	(△7.4)	(△16.2)	(△13.1)	(△17.1)	(△13.3)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8) 자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 (세부업종별) 식료품(19.7%↓), 섬유제품(17.1%↓), 기계·장비(14.3%↓), 금속가공제품(9.5%↓), 고무·플라스틱(19.3%↓), 전자·컴퓨터(14.3%↓)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 감소
- 2022년 제조업은 글로벌 경기불안, 원자재·금리 상승, 중국의 섀다운, 정부의 관급 발주 축소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창업 감소세 확대
- 최근 10년 이상 영세 제조업의 경우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국제 기준 강화), 제품 가격 등 경쟁력 악화로 생산이 아닌 수입 등 제조업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제조업 공장이 이동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연령별) 30세 이하를 중심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 * '22년 연령별 제조업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30세미만) △17.1 (30대) △14.7 (40대) △13.7 (50대) △13.7 (60세이상) △7.4
- (조직형태별) 법인 및 개인 창업 모두 감소
 - * '22년 제조업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법인) △9.9 (개인) △14.7
- (건설업) 정부의 SOC예산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설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계약 해지(타절), 부동산 시장 침체/부동산 PF 위축 등의 부정적 요인과 기저효과 등으로 2022년 건설업 신규 창업은 감소 전환
- (연간동향) 2021년 증가에서 다양한 부정적 요인 등으로 2022년 건설업 창업은 감소 전환

(단위 : 개, %)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건설업	16,759	16,267	71,489	18,790	17,676	16,290	14,515	67,271
	(3.7)	(0.8)	(7.7)	(△5.5)	(△4.9)	(△2.8)	(△10.8)	(△5.9)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세부업종별)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건물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등이 감소

○ '22년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PF 위기 등 다양한 부정요인으로 건설업 창업은 감소

* 건설업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건설투자는 2021년 대비 △3.5%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2.7%)이나 회복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2010년(3.7%)과 유사한 수준. 또한 건설착공면적도 2021년 대비 18.0% 감소했고, 2022년 12월 건축착공면적은 51.3%(YoY) 감소해 전년대비 격차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2년 러-우 전쟁, 중국 항구봉쇄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부정적 건설경기 전망 등이 크게 작용하여 전문직별 공사업 창업 역시 감소

○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40~50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감소

* '22년 연령별 건설업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30세미만) △4.6 (30대) △3.5 (40대) △7.0 (50대) △7.0 (60세이상) △4.5

○ (조직형태별) 법인 및 개인 창업 모두 감소

* '22년 건설업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법인) △18.2 (개인) △3.7

□ (숙박·음식점업) 물가급등*(식재료 등), 높은 금리 등이 크게 작용하여 음식점업 창업은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기저효과로 숙박업은 감소로 전환

* 소비자물가(전년대비, %, 2020=100) :
(15) 0.7 → (16) 1.0 → (17) 1.9 → (18) 1.5 → (19) 0.4 → (20) 0.5 → (21) 2.5 → (22) 5.1

○ (연간동향) 경기불안 요인(물가, 금리 등) 등으로 '22년 상반기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은 축소

(단위 : 개, %)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숙박·음식점업	36,772	40,470	161,283	33,020	41,020	41,133	41,316	156,489
	(△14.9)	(△0.7)	(△3.2)	(△5.4)	(△16.5)	(11.9)	(2.1)	(△3.0)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세부업종별) 숙박업, 음식점업은 감소하였지만 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증가
 - 음식점업 중 한식일반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배달 또는 포장 가능한 치킨·김밥·피자 등의 음식점업 역시 감소
 -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7.7%↓), 치킨전문점(23.0%↓),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23.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1.5%↓)
 - 숙박업은 여관업과 기타 일반·생활숙박시설운영업을 중심으로 감소
 - 반면 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일반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증가

○ (연령별) 30세 미만,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 감소

* '22년 연령별 숙박·음식점업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30세미만) △8.4 (30대) △1.1 (40대) △1.5 (50대) △2.4 (60세이상) △3.7

○ (조직형태별) 개인창업은 감소, 법인은 세제혜택⁹⁾ 등으로 증가

* '22년 숙박·음식점업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법인) 7.5 (개인) △3.1

□ (금융·보험업) 경기둔화, 금리인상 영향에 따른 투자부진, 기저효과 등으로 금융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창업 감소

* 고금리, 고환율의 영향으로 위험자산시장에서 안전자산시장으로의 투자 자금이 이동함에 따라 증권, IPO, 암호화폐, VC 시장에 대한 투자가 감소

* 원/달러환율(원) : ('21.01) 1,097.495 → ('21.06) 1,121.30 → ('21.09) 1,169.54 → ('21.12) 1,183.70 → ('22.03) 1,221.03 → ('22.06) 1,277.35 → ('22.09) 1,391.59 → ('22.12) 1,296.22

* 기준금리(%) : ('21.05) 0.5 → ('21.08) 0.75 → ('21.11) 1.0 → ('22.01) 1.25 → ('22.04) 1.50 → ('22.05) 1.75 → ('22.07) 2.25 → ('22.08) 2.50 → ('22.10) 3.00 → ('22.11) 3.25 → ('23.01) 3.50

○ (연간동향) '21년 금융·보험업 창업은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지만, '22년은 불안정한 환경증가,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 전환

9) 법인으로 음식점을 창업 시 성실신고대상 의무 면제(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7.5억 원 초과 시 성실신고대상), 법인 대표 건강보험료 직장보험자(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전환, 대표자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자는 불가), 세금부담 완화(매출에 따라 법인은 소득세율 최대 22% · 개인사업자는 42%) 등의 장점이 존재함

(단위 : 개, %)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금융·보험업	2,597	2,546	10,833	2,476	2,467	2,003	1,595	8,541
	(16.2)	(19.1)	(31.4)	(△4.0)	(△20.7)	(△22.9)	(△37.4)	(△21.2)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세부업종별)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관련서비스업 모두 감소
- 경기침체, 보험산업 성장에 대한 전망 불확실(수익성 악화),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험 대리 및 중개업을 중심으로 신규 창업 감소
 - * 생명보험은 금리상승기 채권매매수익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투자손익이 정체되고, 손해보험도 사회적 이동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다소 악화
- 2022년 경기둔화, 금리인상(환율증가), 가상화폐 위험도 증가(FTX 파산, 테라·루나 사태 등) 등으로 금융업 창업 감소

- (연령별)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 감소

* '22년 연령별 금융·보험업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30세미만) △16.9 (30대) △28.1 (40대) △18.6 (50대) △26.1 (60세이상) 0.0

- (조직형태별) 법인 및 개인 창업 모두 감소

* '22년 금융·보험업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법인) △15.5 (개인) △28.4

- (전문·과학·기술)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투자, 소비감소, 기저효과 등으로 광고, 디자인, 컨설팅 중심으로 창업 감소

- (연간동향) 지난해까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22년은 감소로 전환

(단위 : 개, %)

구분	'21년			'22년				
	3/4	4/4		1/4	2/4	3/4	4/4	
전문·과학·기술	16,406	16,260	65,134	16,067	15,681	13,875	12,412	58,035
	(18.4)	(16.6)	(19.7)	(△0.9)	(△3.5)	(△15.4)	(△23.7)	(△10.9)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세부업종별)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전체에서 창업 감소

- 기저효과와 대내외적 경기 불안정성 상승 등에 따른 투자 둔화로 **광고업,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업, 전문디자인업**을 중심으로 창업 감소
 - * 광고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감소로 향후 디지털 광고 분야의 창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국광고산업협회)
 - * 경영컨설팅업은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산업 침체와 정부지원사업의 조건 강화(참여조건 강화, 참여가능 횟수 감소 등) 등으로 창업 감소(한국컨설팅산업협회)
 - * 전문디자인업은 최근 1인 무점포 디자인업체(프리랜서 포함)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0~2021년 창업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2022년 창업은 감소(한국디자인진흥원)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40~50대에서 크게 감소**
 - * '22년 연령별 전문·과학·기술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
(30세미만) △9.4 (30대) △8.3 (40대) △12.2 (50대) △13.8 (60세이상) △9.4
- **(조직형태별) 법인창업은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개인창업은 크게 감소**
 - * '22년 전문·과학·기술 창업기업 증감률(% , 전년대비) : (법인) △1.2 (개인) △14.2

참고2

'19~'22년 주요 업종별 창업 동향

(단위 : 개,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전 체	1,285,259 (△4.4)	1,484,667 (15.5)	1,417,973 (△4.5)	1,317,479 (△7.1)
실질 창업 (부동산업 제외)	1,005,462 (2.9)	1,046,814 (4.1)	1,100,589 (5.1)	1,111,718 (1.0)
기술기반업종	220,607 (4.0)	228,949 (3.8)	239,620 (4.7)	229,416 (△4.3)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1,990 (12.0)	13,094 (9.2)	13,958 (6.6)	15,752 (12.9)
제조업	52,317 (△8.7)	49,928 (△4.6)	47,989 (△3.9)	41,595 (△13.3)
전기, 가스, 공기조절공급업	27,729 (△24.6)	26,131 (△5.8)	24,146 (△7.6)	23,773 (△1.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935 (△2.1)	882 (△5.7)	752 (△14.7)	704 (△6.4)
건설업	66,279 (△1.7)	66,366 (0.1)	71,489 (7.7)	67,271 (△5.9)
도매 및 소매업	333,246 (7.9)	390,055 (17.0)	425,446 (9.1)	456,426 (7.3)
운수 및 창고업	62,854 (0.3)	61,463 (△2.2)	66,723 (8.6)	65,798 (△1.4)
숙박 및 음식점업	185,116 (1.3)	166,548 (△10.0)	161,283 (△3.2)	156,489 (△3.0)
정보통신업	30,336 (5.5)	36,760 (21.2)	45,578 (24.0)	46,041 (1.0)
금융 및 보험업	7,739 (9.3)	8,245 (6.5)	10,833 (31.4)	8,541 (△21.2)
부동산업	279,797 (△23.8)	437,853 (56.5)	317,384 (△27.5)	205,761 (△35.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6,413 (14.7)	54,411 (17.2)	65,134 (19.7)	58,035 (△1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4,342 (15.0)	47,070 (6.2)	38,675 (△17.8)	39,291 (1.6)
교육서비스업	42,864 (4.2)	39,056 (△8.9)	40,793 (4.4)	42,536 (4.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527 (△10.6)	4,939 (△10.6)	5,094 (3.1)	4,815 (△5.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1,139 (△4.9)	27,904 (△10.4)	26,576 (△4.8)	28,318 (6.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6,636 (2.8)	53,962 (△4.7)	56,120 (4.0)	56,333 (0.4)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참고3

월별 창업기업동향 통계 개요

- **(작성목적)** 전체 기업의 창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중소기업 현장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생산
- **(작성근거)** 『창업기업 동향(구, 신설법인 동향)』 통계작성 변경승인 (통계청 통계조정과-254, '19.1.21.)에 의한 가공통계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 **(작성내용)** 월별 전체 기업의 업종·연령·조직형태·성·지역별 창업 동향
 - 업종 분류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업종코드 기반, 통계청 조사자료 및 연계표 등 활용하여 보완
 - 연령 분류 :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만나이 기준)
 - 조직형태별 분류 : 개인, 법인
 - 성별 분류 : 여성, 남성
 - 지역 분류 : 전국 17개 시·도
- **(작성단위)** 영리기업
 - 개인사업자 및 영리법인의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중간 2자리로 구분)
 - 제외사업자 : **80**(법인 아닌 단체), **82**(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3**(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4**(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5**(영리법인의 지점),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비시장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업(단체) 등은 제외
 - 제외대상 산업분류 : **O**(국방, 사회보장), **T**(자가소비), **U**(국제기관)
 - 제외대상 법인유형 : 사단·재단법인, 학교법인, 농·축·수산·산림 협동조합 등
- **(작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작성방법)** 전국 사업자등록 DB(통계청, 행정자료)를 업종·연령·조직형태·성·지역별로 분류하여 집계

□ (이용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
 -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
- 기존에 작성하던 신설법인동향(법인등기자료)과 활용하는 행정자료(사업자 DB)가 변경되어 법인 총계·업종구분 상 차이가 발생하여 비교 시 유의

구분	차이 사유
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 시점과 사업자등록 시점이 상이 (법인등기 상당기간 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법인동향은 법인등기 시 신청인이 기재한 목적 기준, 창업기업 동향은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분류

□ (용어설명)

- 기업: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면서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법적 경영단위(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개인기업의 형태로 구분)
- 창업기업: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일자가 해당 월에 속하는 영리기업(개인, 법인기업 포함)
 -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 포함
- 기술기반창업: 기술기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창업
 -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 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N75), 교육 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R90))

□ (2022년 창업기업 동향 공표 계획)

통계명	공표일자	비고
2022년 연간 및 12월 창업기업 동향	2022. 3. 3.(금요일)	보도자료 발표

- * 상기 공표 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통계수치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공개되며 분기별로 보도자료 발표